

# 2차 세계대전 후 79년만에...옛 동독 극우 정당 부활

### 독일대안당, 튀링겐 주의회 선거 33% 득표 승리 사회민주당 6% 그쳐...솔츠 정권 집권기반 '취침'

과거 동독에 속했던 독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79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했다.

현재로서는 각 정파의 해체모여 과정에서 주 지방정부를 구성할 공산은 낮아 보이나, 유럽 전역에 불어온 극우 바람이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독일에서 다시 확인됨에 따라 정치 지형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올라프 솔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 소속 정당들은 참패의 굴욕을 맛보면서 솔츠 총리로서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 완패에 이어 극우 돌풍에 집권 기반 자체가 휘청거리는 등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몰리게 됐다.

1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 33%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반면 솔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의 득표율은 6.1%에 그쳤으며,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도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79년 만이다.

또 AfD는 같은 날 함께 치러진 작센 주의회 선거에서도 30.5%로 2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AfD는 신호등 연정에 대한 불만과 극우 바람을 타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반이민 정서가 강한 동독 지역에서 극우 돌풍을 일으킨 셈이다.

다만 기성 정치권을 대표하는 SPD와 기독교민주당(CDU)을 비롯한 대부분 정당이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 주 정부를 구성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법수호청은 튀링겐·작센 지역 AfD를 우의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없었더라면 AfD가 또다시 독일에 반이민 정책을 근간으로 한 지방정부를 탄생시킬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AfD는 끊임없는 반이민 스타들에 휩싸였다.

AfD가 비밀회의에서 외국인 대거 추방 논의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한 AfD 고위 당국자가 나치 무장 친위대 대원 모두가 범죄자는 아니라는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런 스타들도 유럽연합 회의론과 친푸틴 정당을 지지하는 옛 동독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지 못했다.

여기에 카리스마와 소통 능력 부재로 역대 가장 인기 없는 총리로 꼽히는 솔츠 총리의 존재도 SPD가 고전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실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70% 이상이 그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있다.

솔츠 총리가 이끄는 이른바 '신호등 연정'도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정부로 추락했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민 증가, 안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등 유권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슈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내부 갈등만 노출



1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시내에서 현지 주민들이 'AfD를 막아라! 인종차별은 대안이 아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배너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날 치러진 독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 33%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하는 연정에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권자들은 독일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하면서도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또 잇따른 전쟁이 촉발한 생계비 위기 속에 연립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도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더해 선거 직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쾰른에서는 시리아 이민자의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죽고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집권 연정의 선거운동에 대역 약제

가 됐다.

솔츠 총리는 지난주 불법 이민 단속을 명령했다. 여기에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첫 번째 아프가니스탄인 추방, 다른 EU 회원국에서 독일로 들어온 망명 신청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고 정책의 강도면에서도 보수적인 튀링겐 및 작센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솔츠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조기 총선 압박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사실상 가능성이 마비된 연정은 내년 연방 선거까지 비틀거리며 솔츠 총리의 '퇴진'을 지연시키는 것 이외에 아무런 기능도 못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텔레그래프는 솔츠 총리가 주도하는 사회민주당이 1933년 독재자 히틀러에게 입법 전권을 부여해 나치 독일 탄생의 길을 트 수권법(전권 위임법) 제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정당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 참패가 더 쓰라리고 냉랭했다.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율 '정체'... 트럼프에 4% 앞서

### 여성유권자, 해리스 선호 늘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상승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ABC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전당대회(8월 19~22일) 직후인 지난달 23~27일 성인 24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

전당대회 전인 지난달 9~13일 진행한 여론조사 지지율(해리스 49%·트럼프 45%)과 비교하면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다.

통상 전당대회 기간 후보가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이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ABC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공화

당 전당대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이 양 진영으로 확고하게 갈린 양상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전체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 유권자의 해리스 선호가 더 두드러졌다.

여성 유권자의 지지율은 해리스 54%·트럼프 41%로 전당대회 이전 조사(해리스 51%·트럼프 45%)보다 두 후보 간 격차가 벌어졌다.

남성 유권자의 지지율은 해리스 49%·트럼프 46%에서 해리스 46%·트럼프 51%로 뒤집어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라고 ABC뉴스는 설명했다.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을 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93%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을 잘하고 있다고 봤지만,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79%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좋은 점수를 줬다.

오는 10일 예정된 첫 대선 TV토론의 경우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86%가 해리스 부통령 승리를 예상했고,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79%가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를 전망했다. /연합뉴스

## 3만8266건

### 아마존 8월 화재 14년만에 최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 8월 화재 발생 건수가 14년 만에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아마조나스주(州)를 비롯한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지난 한 달간 3만8266건의 화재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8월 기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설명했다.

특히 아마조나스에서만 1998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1만328건의 화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5474건)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습지를 가축 목장을 위한 목초지나 밭으로 바꾸기 위해 삼림을 벌채한 뒤 일부러 불을 지르는 '화전(火田)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아마존은 8~10월이 건기라 공기가 따뜻하고 초목이 건조해 화재가 더 빠르게 확산하는데 주민들이 이런 조건을 이용해 화전을 만들고 있다고 G1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 94세 워런 버핏의 장수 비결은 하루 콜라 5캔·사탕·삶의 기쁨

'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94번째 생일을 맞았다.

그의 생일을 이틀 앞두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은 장중 1조 달러(약 1339조원)를 넘어 미국 기업 중 빅테크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다.

미 경제지 포천은 1일(현지시간) "버핏의 장수 비결은? 코카콜라와 캔디, 그리고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버핏이 일생에 걸쳐 투자자로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면서도 94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는 비결을 분석했다.

우선 버핏의 식단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강 식단과는 거리가 있다고 포천지는 전했다.

그는 2015년 포천지와 인터뷰에서 "나는 6살 아이처럼 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츠'(Utz) 감자 스틱을 좋아하고 매일 12온스(355ml) 분량의 코카콜라를 5개씩 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포천지는 특히 충분한 수면 시간과 두뇌 활동, 정신적인 측면에 주목했다.

버핏은 2017년 PBS 인터뷰에서 "나는 자는 것을 좋아한다"며 "그래서 매일 밤 8시간은 자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나는 오전 4시부터 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버핏은 또 일주일에 최소 8시간을 할애해 친구들과 브리지게임(카드를 이용한 두뇌 게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그는 HBO 다큐멘터리에서 하루에 5~6시간을 독서와 사색을 하며 보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장수 비결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라고 포천지는 짚었다.

그는 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 나이가 되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 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